



저렴한 가격의 양질 돈육 공급과 유통구조개선에 기여

안동지부(지부장 : 한일환)는 지난 8월 22일 오전 11시에 조옥봉 경북도협의회장, 유진현 김천지부장 등 도내 각 지부장과 안동지역 축산관계자 지부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지부 식육직판장 개점식을 가졌다.

이날 개점식에서 한일환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UR 등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수축산물의 유통체계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직접 전달되는 유통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보호받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에따라 우리 양돈농민 스스로가 유통에 참가하여 자신들이 기른 신선하고 값싼 돈육을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여 소비자는 더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돈육을 구입할 수 있는 식육직판장을 개설케 되었으며, 따라서 앞으로 안동지역의 유통구조개선에 크게 기여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부터 준비에 들어가 이번에 개점된 안동지부 식육직판장은 안동지부 회원 35명이 각자 50만원에서 200만원을 투자, 총 4천5백만원의 비용을 들여 안동시 신시장 입구 대안극장 사거리에 설치, 18평 규모에 소 2두, 돼지 20두를 비축할 수 있다.

직판장 운영은 직판장 운영위원장인 배봉규씨의 책임아래 운영되고 그 외 2명의 직원을 두었다. 직판장

운영방향은 운영위원과 회원들의 지속적인 토론을 거쳐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안동지부 식육판장이 이날 책정한 돼지고기 가격은 상등육은 600g당 2,300원, 중등육은 600g당 1,800원을 받았으며, 직판장에 비축된 20마리 분량의 돼지고기중 2/3가 개점 4시간만에 팔려나가 안동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식육직판점 개점으로 안동시의 축산기업조합에서는 직판점 개점 이전 상등육, 중등육 등 부위별 판매 없이 600g당 2,800원을 받고 있던 돼지고기를 상등육은 600g당 2,500원, 중등육은 600g당 2,300원으로 낮추어 판매, 축산기업조합에서의 폭리를 방지하여 그동안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나타냈다.

안동지부 직판장의 돼지고기 구입은 회원들 돼지를 순번제로 정하여 암돼지 만을 구입키로 하고 육가공업체에서의 구입가격인 서울 3개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66%보다 높은 70%의 가격으로 구입, 회원들에게 이익이 돌아 가도록 했다.

안동지부 회원들의 활기차고 단합된 모습으로 문을 열은 안동지부 식육직판점은 안동지부의 발전과 함께 유통구조 개선으로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은 물론 돼지고기의 소비촉진도 이루어질 것이다. 